

# 초국적 서재의 탄생

## - 1950~60년대 한국의 외서 시장과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

이용희(대한출판문화협회)

---

### 목차

1. 들어가며
  2. 외서점의 출현과 외서 시장의 형성
  3.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과 한국 독자
  4. 결론을 대신하여
- 

## 1. 들어가며

1950~60년대 한국 출판계는 국가 발전과 근대화에 기여하는 ‘도서’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책을 통해 선진국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국내에 신속히 전파하는 것이 후진국이나 ‘발전도상’에 있는 국가의 책무이자 출판계의 사명이라 여겨졌다. 물론 한국만 그랬던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국제개발처(AID)의 한국도서개발사업현황조사단이 1967년에 발표한 한국 출판산업 현황 조사 보고서<sup>1)</sup>와 이를 계기로 1968년 서울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도서와 국가발전’에 관한 국제 회의)의 해외 참석자들도 공유하고 있던 바였다.

이 보고서와 세미나의 주요 논제 중 하나는 국제 협력과 해외기관의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미국국제개발처(AID), 주한미국경제협조처(USOM), 미국공보원, 아시아재단,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의 도서 지원 활동, 유네스코와 AID 원조를 통한 아시아지역도서개발센터 설치, 국가도서개발위원회의 구성, 국제저작권협정 가입 등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대비하는 출판계의 주요 현안을 망라했다. AID 보고서와 국제 세미나는 미국의 해외 도서 지원 정책의 새로운 흐름<sup>2)</sup>에 국가적 도서개발계획 수립과 해외 기관의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한국 출판계가 적극 호응하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는 해방 후 약 20년 간의 미국의 대한(對韓) 출판원조 역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이 두 개의 이벤트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기획과 실무를 맡았던 이들은

- 
- 1) Stanley A. Barnett 외, 「한국의 출판계 현황과 그 문제점: A.I.D 조사보고서」, 『출판문화』, 대한출판문화협회, 1967.2.
  - 2) AID는 미국 울프경영연구소 주관 한국도서개발사업현황조사단에 조사를 위촉하였고, 조사단은 1966년 6월경 3주간 방한하여 한국 출판산업 실태를 조사했다. 이 조사는 존슨(L.B. Johnson) 미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교서와 행정지시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다. 후진국의 출판계와 도서 판매 업무 육성을 위한 자금 및 기술 지원, 출판산업 종사자 교육, 도서관 지원 및 전문가 양성 등이 교서와 행정지시서 내용의 골자였다. 민영빈, 「국제협력과 도서개발」, 『도서와 국가발전 세미나 보고서』, 대한출판문화협회, 1968.4.

영어 잡지를 만들거나 외국 도서를 취급하는 회사의 대표들이었다. 당시 영어잡지사였던 시사영어사의 민영빈 사장과 외서 수입상인 범문사의 유익형 사장<sup>3)</sup>은 출판계와 손잡고 각종 국제적 이벤트에 참여했다.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해외 출판계 시찰, 국제출판협회 회의, 국제도서전, 아시아 도서개발 전문가 회의, 아시아 저작권 세미나 등에 참여한 이들은 민영빈과 유익형 같은 영어에 능통한 출판·서점인들이었다.

고려대 영문학과를 나와 영자신문 기자 생활을 한 민영빈과 미국 보스턴대 유학 후 『사상계』 기자로 일했던 유익형은 공히 1960년대 초에 각각 잡지업과 서점업에 뛰어들어 한국 출판계와 외서(外書) 시장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다. 전공과 업종의 특성상 이들은 당시 한국에서 정부 관료와 공무원, 일부 언론사 기자와 학자, 예술가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잦은 외유(外遊)를 경험한 부류에 속했다. ‘해외 문화의 신속한 수입’과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이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던 때에 외국 서적을 취급하는 출판·서점인만큼 이를 수행할 책임자는 드물었을 것이다. 1960년대는 바야흐로 “서적의 교류는 문화의 교류이자 문화의 무역”<sup>4)</sup>으로 인식되던 시대였다.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한국 출판·독서문화의 세계화 과정에 관여하고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외국도서 전문 서점의 등장과 외서 시장의 형성 과정이다. 그리고 외서의 양이 증가하고 번역물의 생산과 수용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미국발 문화제도로써 도입된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도 살핀다. 다시 말해, 1950~60년대 한국에 유입된 미국 도서와 일본 도서 등 외서의 유통, 수입 제도, 수용 양상 등을 살핌으로써 한국어 번역물의 저본을 공급한 ‘외서 시장’과 1960년대 번역물 붐을 매개했던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이후 한국 번역 장의 형성이나 번역문화·문학사<sup>5)</sup>, 미국의 대한(對韓) 도서 정책과 번역 사업에 대한 연구들<sup>6)</sup>이 거둔 탁월한 연구 성과와 비교하면, 한국 외서 시장의 형성사 자체를 조명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선행 연구를 통해 해방 후 한국 번역 장의 구조 및 성격, 국내외 국가기관과 민간단체의 역할, 번역 양태와 번역 주체들의 인식, 번역물 수용 양상 등이 상당 부분 규명되었으나 정작 한국에 유입된 수많은 외국 책들의 규모와 행방, 수입 주체인 출판·서점 자본과 유통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충분한

3) 1958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주최한 ‘도서와 국가발전’ 세미나의 제명과 주제를 제안한 이가 범문사 유익형 사장이었다고 한다. 민영빈 사장은 당시 출협 상무이사로서 이 세미나에서 「국제협력과 도서개발」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담당했다. 『도서와 국가발전 세미나 보고서』, 대한출판문화협회, 1968; 한만년, 「범문사 유익형 사장을 보내면서」, 『출판문화』, 1999.2. 유익형은 자필 공적조서(1977년 작성)에서 “AID 조사단(66년), 프랑크린 북 프로그램의 출판전문가(72년) 등을 초청하여 한국의 출판계 현실을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데 주역을 맡았으며, 1968년 4월 한국에서 개최된 <도서와 국가발전>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적었다.

4) 「문화산맥: 출판」, 『경향신문』, 1965.8.26.

5) 박지영, 「번역의 시대, 번역의 문화정치 - 1950년대 번역 정책과 번역문학장」,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0; 이봉범, 「1950년대 번역 장의 형성과 문학 번역 - 국가권력, 자본, 문학의 구조적 상관성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7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2; 박지영, 「1950년대 번역가의 의식과 문화정치적 위치」, 『상허학보』 30, 상허학회, 2010;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등.

6) 허은, 「미국의 문화냉전과 ‘자유 동아시아’의 구축, 연쇄 그리고 균열 - 미국정부의 도서계획과 한국 사회 지식인의 인식」, 『민족문화연구』 5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3.5; 차재영, 「1950년대 한국에서의 미국 도서번역 사업의 전개와 의미」,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회, 2016.8 등.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sup>7)</sup> 참고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고, 문학과 인문과학의 범주를 넘어설 경우 수용사의 연구 방법론도 갖춰져 있지 않다. 출판문화사나 서지학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정리와 분석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대한출판문화협회의 1960년대 『한국출판연감』이나 1971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간한 『외국도서 종합목록』<sup>8)</sup>, 원로출판·서점인의 구술 자료, 각종 신문·잡지 등에 기록된 외서 시장의 실태나 외국 도서 서지(書誌)가 연구사의 공백을 채워줄 1차 자료로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될 수 있겠다.

우선은 한국에 외국 서적들이 대량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논의를 출발해야 할 듯하다. 주지하듯 해방 후 엄청난 양의 외서가 해외 원조기관과 민간 단체 등을 통해 지원, 기증, 교류 등의 형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1950년대 중반부터는 공식적인 서적 수입도 시작됐다. 밀수도 횡행했다. 여러 수입상들이 가세했고, 외서점도 속속 가두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들어와 유통된 외서들은 국가기관과 도서관, 학교, 서점, 개인의 서재 등으로 흘러들어갔다.

외국 서적 유입량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에 대한 국가적 관리 및 통제, 해외 기관들의 개입, 민간 주체들의 활동은 전후 한국 출판·독서문화의 성격을 좌우하는 기본 조건이 되었다. 외국의 선진문화 흡수에 고심하고 세계문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외서 수입과 수용에 열을 올리는 ‘후진국’ 한국의 출판·독서문화는 이러한 조건 속에서 재구성되었다. 또한 독서를 매개로 한 교양열의 확산과 삶의 현대화를 추동하거나 제어하는 법·제도와 담론들도 외국 서적의 유입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졌다.

전후 한국의 전면적인 문화 재건의 국면에서 일본과 미국의 출판시장이 한국 출판시장에 끼쳤던 영향은 심대했다. 이는 국내로 이입된 서적의 종수와 종류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문화 접변 혹은 문화 이식으로서의 책의 이동은 책에 담긴 지식·정보·사상·감성의 전파뿐 아니라 책을 둘러싼 제도, 다시 말해 출판 및 독서와 관련된 문화제도의 전파까지도 수반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베스트셀러’는 전후에 형성된 초국적 문화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1950~60년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는 미국과 일본의 출판 시스템과 텍스트를 참조·모방·준거의 원천으로 삼아 구성된 ‘자국화된 세계화’의 한 징표였다.

외서의 대량 유입과 외서점의 번성, 번역서 발간과 수용, 서적 밀수와 해적판의 범람, 독서 교육과 운동, 외국 간행물 수입 관련 법률 제정과 검열, 베스트셀러 문화의 태동, 시청각 매체와의 교섭 등을 포함하는 ‘초국적 출판·독서문화’가 미국과 일본 출판시장의 강력한 영향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이는 1950년대 이후 한국 출판시장이 (한-미-일 간의 정치적 위계와 문화교류의 방향성을 전제로 한) 탈식민과 냉전 문화의 자장 속에서 재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외서의 유입 이후로 한국 정부의 반일 정책 하에서 은밀하게 혹은 공식적으로 번역·

7) 이봉범의 2012년 논문이 거의 유일하게 1950년대 ‘외서’ 수입 제도와 출판 자본의 문제에 대해 상세한 논의를 펼친 바 있다.

8) 국립중앙도서관 편, 『외국도서 종합목록 1970』, 1971. 이 목록은 전국 46개 대학도서관의 협조를 얻어 1970년 1월부터 12월까지 외국 도서 목록 카드 16,518매(서양서 14,729매, 중국어 76매, 일본어 1,713매)를 영인했다.

유통되었던 일본 책들, 문화냉전의 시대에 책을 ‘이념전쟁의 무기’로 규정했던 미국 정부의 도서 지원 계획에 따라 원조물자로서 유입된 미국 책들, 반공주의적 외서 통제책 하에 유입된 동서양의 고전(‘세계문학’)과 출판 자본이 선택한 미국·일본의 베스트셀러, 실용서와 대중잡지 등이 한국 도서와 함께 한국인의 서가에 채워졌다. 이 같은 초국적 서재(transnational libraries)<sup>9)</sup>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맥락을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주요 목적이다.

## 2. 외서점의 출현과 외서 시장의 형성

### 1) 외서점의 등장과 그 의미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잔재했던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과 미군정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새롭게 들어온 미국 문화의 전방위적 영향 속에서 한국 출판시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는 한국어 출판물의 보급뿐 아니라 해외 출판물(외서)의 수입과 통제가 중요한 사회문화적 의제로 부상한 상황을 가리킨다. 독자들의 장서(藏書) 목록부터 출판 관련 법제, 출판산업의 전략과 유통 구조, 독서 행태, 독서문화 담론에 이르기까지 외국 서적의 수용을 둘러싼 모든 제도와 문화가 새롭게 논의되고 바뀌었다.

1950년대부터 유행한 ‘외서(外書)’라는 용어는 단지 ‘외국 도서’의 줄임말로써 해외에서 출간된 도서를 총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외서(外書)라고 일반은 부르지만 이 말은 구미(歐美)에서 수입해 오는 양서(洋書)와 일본에서 수입하여 오는 일서(日書)로 광범하게 사용”<sup>10)</sup>되었다. 외서는 미국 주도의 ‘문화원조’로 유입되는 대량의 서양 서적들과 금제와 검열의 대상이었던 일본 서적을 둘러싼 한국 출판시장과 학계, 도서관계 등의 무성한 논의와 긴급한 수요가 응축돼 있는 전후의 신조어였다.

주지하듯 해방 후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장서와 각처에 산재하는 미군 PX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소책자들을 ‘관으로 달아서’ 사고파는 고서점들이 충무로와 관훈동 인근에 번성했다. 일본의 신간 서적을 파는 일서점(日書店)은 한국전쟁 중에 공보처에서 일본 도서의 수입을 제한적으로 허가한 이후부터 등장했다.<sup>11)</sup> 한국전쟁 후에는 “외국서적 수입이 하나의 문화 부흥 사업이 될 것”<sup>12)</sup>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각종 서양 서적과 잡지, 일본 대중잡지들을 취급하는 이른바 외서점(外書店)들이 서울 도심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1955년의 『경향신문』 기사 「코리아의 이방지대」에 따르면, 외서점들은 명동 뒷골목과 을지로, 충무로 입구 인근에 밀집해 있었다 한다. 양서 책방의 가판대에는 미국의 영

9) ‘초국적 서재’(transnational libraries)는 베네딕트 앤더슨이 필리핀의 독립운동가이자 작가인 호세 리살이 청년 시절에 경험한 다양한 외국 소설 독서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베네딕트 앤더슨, 서지원 역, 『세 깃발 아래에서』, 길, 2009, 69~71쪽 참조.

10) 「불온서적의 범람과 반성」, 『경향신문』, 1957.7.30.

11) 「독서 씨-즌에 한몫? 거리에 일서적 판매상 등장」, 『경향신문』, 1953.10.13.; 이한국 편저, 『4290년 판 출판연감』, 대한출판연감사, 1957.4.

12) 「서적 기근의 대책 긴급」, 『조선일보』, 1953.9.14.

화잡지, 소설책, 사진첩, 탐정소설, 미국백화점의 선전용 팸플릿 등 각양각색의 ‘원서’들과 『킹(キング)』, 『주부지우(主婦の友)』, 『부인구락부(婦人俱樂部)』 등 일본의 유명 잡지가 함께 판매되고 있었다. 소위 ‘GI 문화’의 일부인 미군 부대에서 “휴지”처럼 흘러나온 포켓북, 각양각색의 서양 잡지와 대중소설이 일본 잡지와 뒤섞여서 팔리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 기사는 서점의 풍경이 “마치 ‘일본’의 뒷골목을 옮겨놓은 듯”하고 여기에 전시된 책들은 “‘가·나·다·라’와는 인연이 없는 모든 이방의 서적들”이라고 지적했다.<sup>13)</sup>

범문사(汎文社)와 범한서적(汎韓書籍) 같은 외국 도서 수입을 전문으로 하는 서점이 설립된 때도 1950년대 중반이다. 1958년경 시인 김규동은 “범문사에 책이 들어오는 날은 만사를 잊혀놓고 가본다.”고 했다. 이러한 ‘양서(洋書) 마니아’는 김규동뿐만이 아니었다. 노점 서적상을 배회하며 생계를 위한 번역거리를 찾았던 김수영의 사례가 잘 알려져 있거니와 당시 서울 시내에만 10여 개 정도 있었던 양서점에는 “영, 독, 불어로 되는 원서”를 사기 위해 찾아든 “신사숙녀 또는 학생들이 충만”하여 “책이 들어오는 대로 잘 팔려나가고” 있었다 한다.<sup>14)</sup>

그렇다면 당시 한국어 출판물 시장은 어땠을까? 출판계는 전란으로 인한 지형(紙型)의 멸실, 동대문 덩핑시장 출현으로 인한 유통 혼란, 독자층의 감소와 구매력 저하 등의 문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다. 덕흥서림, 영창서관, 박문서관 등 서점에서 ‘소설류’가 도통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판매고가 높은 것은 대부분 한국어 잡지였다. 『학원』 같은 학생지, 『신태양』, 『여원』, 『아리랑』, 『희망』 등의 대중지, 『현대문학』과 『문학예술』 등의 문예지, 그리고 『사상계』 같은 종합지가 대중독자의 구미에 맞는 매체 전략을 통해 호경기를 맞이하고 있었다.<sup>15)</sup> 정비석의 『자유부인』(정음사, 1954) 같은 한국 문학 단행본의 성공은 극히 예외적인 사건이었다.

1950년대 한국 외서 시장의 성장은 한국어 단행본 시장의 불황과 번역물의 유행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현상이었다.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 영세한 한국의 출판자본은 만성적인 불황에 시달렸다. 한국 출판물에 대한 독자들의 불신과 외국 번역물 간행에 치중하는 경향이 이러한 구조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1960년대에는 외서와 번역물의 유행을 두고 “외국의 잡서들이 우리 출판계에서 판을 치”며 “출판의 불륜”을 저지른 다거나 한국 출판시장이 “국제문화의 쓰레기통”<sup>16)</sup>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 외서 시장의 형성과 관련하여 앞서 인용된 기사 제목인 ‘코리아의 이방지대’나 ‘국제문화의 쓰레기통’이라는 비유가 함의하는 바가 적지 않다. 외서와 외국 번역서의 유행은 단지 개인의 새로운 독서 취향이나 출판사의 사업 전략의 차원을 넘어 한국의 출판·독서문화와 연동되는 공공의 문화영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즉, 미국과 일본의 출판시장을 매개로 한국이 세계 출판시장에 막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

13) 「코리아 이방지대(3)」, 『경향신문』, 1955.11.23.

14) 김규동, 「서적과 영화」, 『경향신문』, 1958.6.11; 「밝은 일면, 양서 붐」, 『동아일보』, 1958.9.12; 「외서 읽히는 동태」, 『동아일보』, 1958.9.23.

15) 김창집, 「폐허의 초기」, 『경향신문』, 1956.12.30. 당시 서점 매상의 7~8할이 잡지 매출이었다.

16) 「서글픈 독서경향, 출판의 불륜 싹트고」, 『경향신문』, 1964.9.30.

다. 외서의 유입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 2) 1950~60년대 외서 수입의 규모

서양 도서의 공식적인 수입은 한국 원양어업의 개척자로 알려진 제동(濟東)산업회사가 1954년 공보처의 허가를 받아 서양 고전문학을 수록한 영국의 포켓북 『Everyman's Library』 3세트를 수입한 것이 최초였다. 1955년부터 수출불(弗)을 통해 수입되기 시작했는데, 1950년대 후반에는 정부불이 방출 및 공매되어 수입 상사들이 양서 수입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부불 공매가 원활하지 않자 외서업자들은 외서협회를 조직하여 정부불 배정, ICA(미국국제협력처) 원조 자금의 사용, 미국과의 IMG(정보매개물보장) 협정 체결 등을 당국에 요청했다. 이중 ICA 자금 사용이 승인되어 양서 수입이 본격화되자 양서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sup>17)</sup>

연도	미국	일본	영국	기타	계
1955	58,165 인문 38,115 자연 20,050	35,886 인문 21,336 자연 14,550	29,414 인문 19,310 자연 10,100	23,450 인문 11,415 자연 12,035	146,915
1956	311,572 인문 287,349 자연 23,223	209,718 인문 80,094 자연 129,624	33,012 인문 31,453 자연 1,559	96,671 인문 83,029 자연 13,602	650,973
1957	649,311 인문 633,524 자연 15,787	394,208 인문 201,715 자연 192,493	61,581 인문 60,860 자연 721	40,543 인문 37,992 자연 2,551	1,145,643
1958	668,164	524,932	82,137	중국 20,468 서독 19,407 홍콩 10,996 스코틀랜드 10,000 불란서 8,942 이태리 1,942 등	1,349,838

「4년 간의 외국 서적 도입 상황」, 『동아일보』, 1959.5.4.; 「활발한 외서 도입」, 『조선일보』, 1959.6.8. (단위: 권)

1959년 『동아일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외국 도서 중 미국과 일본 서적의 수입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기사는 서적 수입 통계 수치가 “해방 후의 한국의 문화가 얼마만큼이나 미국(또는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일본 서적도 이보다는 뒤떨어지고 있으나 영어 및 기타 외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30대 이상은 거의가 일본 서적에 의존하여 선진 사상 및 학술문화를 섭취하고 있다는 사실”<sup>18)</sup>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ICA 외서 구매 자금은 1956년도에 15만 불, 1957년도 20만 불, 1958년도 30만 불, 1959년도에는 50만 불, 1960년 50만 불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서점가에서 외서 판매고가 나날이 증가했다.

4.19 이후에 나타난 일본 서적과 번역물의 범람은 정부의 외환 관리 정책의 변화와 연동돼 있다. 1960년 5월 정부가 외환 관리에 관한 지역별·품목별 제한 조치를 철폐함

17) 최희병(범문사 전무), 「외서(양서) 수입 판매의 현황」, 『도협일보』, 1962.

18) 「4년 간의 외국 서적 도입 상황」, 『동아일보』, 1959.5.4.

으로써 그 이전에는 수출불로만 수입할 수 있었던 일본 서적을 ICA 공매불에 의해서 수입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출판계에서 한국 도서의 보호와 ‘민족혼’ 훼손을 이유로 반대 건의서를 제출<sup>19)</sup>하여 자연과학 전문 도서에만 ICA 공매불을 적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격증하는 수요를 막을 수는 없었다. 1960년대 초 한국의 일본 서적 수입이 전 세계에서 오키나와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일본 전 서적 수출량의 20%)라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막대한 양의 일본 서적이 국내에 들어왔다.<sup>20)</sup>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외서 수입은 1960년 이후 ICA 서적불 배정이 중단되고 상공부가 무역업자 등록제를 실시하자 일시 침체되었다. 무역업 등록제가 실시됨에 따라 몇 년간 정부에 등록된 수입사(양서는 범문사, 일서는 동남도서)만이 직접 수입할 수 있었고, 나머지 사업체들은 무역회사에서 수입을 대행하여 책을 들여올 수밖에 없었다.<sup>21)</sup>

구분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기타	소계
정부불(\$)	7,500	260,000	17,600	7,500	5,000	5,100	302,700
IMG(\$)	150,000						150,000
소계(\$)	157,500	260,000	17,600	7,500	5,000	5,100	452,700
비율(%)	34.8	57.4	3.9	1.7	1.1	1.1	100

「한국인은 무엇을 읽나? 숫자로 본 내외 서적 진단」, 『조선일보』, 1965.9.23. 통계 수치를 표로 재구성.

하지만 외서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서 1964년경에는 정부불 30만 불, IMG 자금 20만 불 등 도합 약 50만 불이 외서 수입에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 약 57%가 일본 서적, 35%가 미국 서적 수입에 사용되었다. 외서 수입량을 권수로 보면, 이 해에 1년간 총 381,382권(자연 약 86,000권, 인문 약 295,000권)이 수입되었는데, 이중 일본 서적이 약 25만 권으로 71%, 미국 서적은 약 8만 권으로 23%의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미 정부의 정보매개물보장(I.M.G: The Informational Media Guaranty) 프로그램은 미 공보원을 통한 도서 프로그램의 한계 상황을 배경으로 시행되었다. 미 국무성과 미국해외공보처(USIA)가 관할했던 IMG 프로그램은 미국의 단행본, 잡지, 영화, 레코드 등을 수입하는 현지 국가의 통화로 지불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였다.

IMG 프로그램이 한국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62년이었다. 1959년 9월에 한미 양국 간의 각서를 교환했으나, 미국 정부에서 자금 배정을 미룸에 따라 시행이 보류되다가 1962년 6월 29일에 ‘정보매개물보장계획 협정 시행령’이 의결됨으로써 발효되었다.<sup>22)</sup>

한국의 경우 국내 수입업자가 한국은행을 통해 ‘원화’로 미국 서적을 수입 비용을 지급하면, 미 대사관이 내부 소요 경비로 미국 출판업자에게 ‘달러’로 대신 출판물 대금을

19) 「일서 수입 억제에 관한 건의」, 『대한출판문화협회 25년사』, 대한출판문화협회, 1972, 134~135쪽.

20) 「갈팡질팡하는 일서 수입책」, 『조선일보』, 1960.7.21.; 「정변 후의 외서수입 전망」, 『조선일보』, 1960.6.5.; 「독서시존 맞은 출판계」, 『조선일보』, 1962.10.4.

21) 「한숨 쉬는 외서가」, 『경향신문』, 1963.7.29.

22) 「한미간 각서 교환」, 『동아일보』, 1959.9.26; 「미화비율 등 결정」, 『동아일보』, 1962.7.1

지불해주는 시스템이었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1967년 2월에 중단될 때까지 외서 구입의 중요한 루트 중 하나였다. 단, 미 국무성과 특약 관계가 있는 출판사의 간행물만 수입이 가능했던 터라 서적 선택에 제한이 있었다.

	Program began <sup>1</sup>	Program ended <sup>1</sup>	Contracts issued	Payments made
<b>Active countries:</b>				
Afghanistan.....	1961	-----	\$227,800	\$76,418
Guinea.....	1964	-----	80,750	18,909
<b>Korea</b> .....	1962	-----	2,061,700	699,867
Pakistan.....	1955	-----	4,138,673	2,940,431
Poland.....	1958	-----	10,558,759	7,985,827
Turkey.....	1956	-----	8,943,493	6,625,040
Vietnam.....	1956	-----	5,923,453	4,481,377
Yugoslavia.....	1952	-----	12,202,805	9,033,705
<b>Totals for active countries.....</b>			<b>44,137,433</b>	<b>31,861,574</b>
<b>Countries formerly active:</b>				
Austria.....	1949	1957	591,010	369,553
Burma.....	1958	1961	355,650	155,523
Chile.....	1955	1959	1,476,110	921,915
France.....	1951	1957	851,625	428,483
Germany.....	1949	1955	11,518,052	7,068,729
Indonesia.....	1956	1963	7,737,635	6,163,002
Israel.....	1953	1961	15,406,154	12,098,689
Italy.....	1950	1951	83,295	9,307
Netherlands.....	1949	1954	2,866,559	1,838,719
Norway.....	1949	1957	586,443	314,757
Philippines.....	1953	1961	17,913,904	15,388,937
Spain.....	1957	1960	2,643,675	1,799,911
Taiwan.....	1953	1959	1,880,948	1,283,731
<b>Totals for countries formerly active.....</b>			<b>63,911,060</b>	<b>47,841,256</b>
<b>Totals for all countries.....</b>			<b>108,048,493</b>	<b>79,702,830</b>

Hearings Before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Ninetieth Congress First Session on S.1030, Washington: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7.

미 국무성과 미국해외공보처(USIA)가 관할했던 이 프로그램은 1968년에 공식 종료되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총 21개국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동안 달러가 부족한 국가에 미국 대중문화 산업의 시장을 개척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sup>23)</sup> 한국은 약 6년 간의 프로그램 운용 기간 동안 총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 3) 외서의 유통과 밀수

1960년대 개인과 외서 수입상이 활용한 외서 구입 채널은 유네스코 쿠폰<sup>24)</sup>, IMG 달러, 정부불 이용 등 있었는데, 이 가운데 ‘한화’를 이용하는 유네스코 쿠폰이나 IMG 달러를 제외한 일반적인 수입 방식은 외서 수입상이 고객의 주문이나 해외에서 보내온 도

23) Greg Barnhisel, “Cold Warriors of the Book: American Book Programs in the 1950s”, *Book History, Vol.13*, Johns Hopkins Univ. Press, 2010.

24) 「유네스코쿠폰의 실제 이용방법」, 『경향신문』, 1961.9.13.: 「한국의 숙제(4) 외간물 정책」, 『경향신문』, 1965.1.27. 유네스코 쿠폰은 쿠폰 배정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쿠폰 발매 지시서를 받은 후 한국은행에서 한화로 대금을 납부하고 쿠폰을 받아 외국 서적상에게 쿠폰을 발송한 후 책을 받는 방식이다. IMG 달러는 한미협정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사용하는 한화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서 목록에 따라 주문 리스트를 작성해 문공부의 검열을 거쳐 상공부의 외화 배정을 받은 후에 해외 서점과 출판사에 주문을 넣고 대금을 외환은행에 지급하면 몇달 후 책이 수입항의 세관을 거쳐 배송되는 식이었다. 수속이 까다롭거나 배송 기간이 길고, 외화 배정액이나 환율 변동에 따라 도서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 필요한 책을 제때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었다.

복잡한 외서 수입 업무는 외국 서적 수입 전문 서점들이 맡았다. 광화문과 종로 인근에 자리를 잡은 범한서적과 범문사, 과학서적센터 등의 외서점은 안암동의 국제서림, 충무로의 동남도서와 문향서림, 신문로의 연합서림과 문경서림 등이 1950~60년대에 활발하게 사업을 하던 외서 수입상들이었다.

‘암시장’도 횡행했다. 충무로, 을지로, 명동 일대의 외서가는 “에로가 넘치는 문화의 황색지대”이자 “허영의 시장”으로서 “외서구입 허가품목엔 없는 옐로물”과 “공보부의 제한 품목”에 속하는 일본의 잡지들이 암거래되고 대본(貸本)되는 곳이었다.<sup>25)</sup>

해방 후 일본과의 무역이 재개된 1949년경을 전후로 일본 책들은 부산, 포항, 여수, 인천 등의 무역항을 통해 밀수되었다. 이 시기에 서적 밀수와 음성적인 수용의 ‘제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정부 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저속한 일본 출판물의 수입·배포를 엄중 단속했으나 일본 서적과 잡지의 범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에는 “밀수 루트가 海(해)·空(공)으로 흰하게 티워져있다.”<sup>26)</sup>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1950년대는 외국 서적 도입을 둘러싸고 국가 차원의 통제와 관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마련되기 시작했던 시기였다. 이때부터 외국 간행물 관련 출판법과 규칙들이 제정·정비되고 그에 대한 대응 담론들이 왕성하게 개진되었다. 책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어느 상품의 수입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서적이란 그 외의 상품과 달라 사상이 따라다니는 특수한 상품”이므로 “국가적 견지에서 정부가 외서의 수입·공급에 관해 일정한 통제를” 가해야 한다는 인식<sup>27)</sup>이 검열 당국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므로 해외로부터 들어온 ‘외간물’의 논조와 성격은 검열 당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문화적 헤게모니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한 ‘문화냉전’의 시대에 접어들면서 사상과 정보 전파의 유력한 매체인 책이 ‘이념전쟁’의 핵심 무기로 규정되었던 상황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빈번하게 ‘단속’과 ‘수입금지’ 조치를 받았던 일본 서적들은 ‘불온’과 ‘저속’을 빌미로 문화적 (재)식민화의 우려와 공포를 조장하는 당국의 감시망에 자주 포착되었다. 주요 표적은 외서점이었다. 외서점은 박정희 정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감시 대상이었다. 정간물 법이나 반공법 위반으로 학교 교원과 외서 수입상이 함께 입건되는 일은 자주 있었다. 1961년경 범문사의 유영국(유익형의 선친) 사장은 “미국판 맑스주의 3권을 비롯한 사회주의 이론을 소개한 서적들”을 수입하여 반공법 4조를 위반함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고, 동남도서의 직원이 일본인이 쓴 “공산당 선전서적”이나 “공산주의 찬양을 내용을 한 일본 번역서적”을 문교부의 수입 불허에도 불구하고 수입했다가 체포된 사례도 있었다.<sup>28)</sup>

25) 「한국의 숙제(4) 외간물 정책」, 『경향신문』, 1965.1.27.

26) 「횡설수설」, 『동아일보』, 1961.4.14.

27) 「횡설수설」, 『동아일보』, 1958.3.24.

이렇듯 일본 서적 수입의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꽤 엄격한 검열 제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일서 의존도가 심화’되는 사태가 외서 수용사의 중요한 논점인 듯하다. 1965~66년경에 대일 도서수입액을 보도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1억7천5백여만 원을 수입, 8위의 고객이 되었다가 작년에 서적 1억2천7백여만 원, 잡지 7천1백20만 원으로 琉球(13억 원), 미국(7억9천만 원),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영국에 이어 6위로 올랐다.” 이 기사는 동남아 국가들에 팔리는 일본의 양서 리프린트와 영미권에 수출되는 스포츠와 복식 등의 영문 서적이 상당함을 고려하면, 실제 일서 수입액으로는 세계 3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일서의 수입액 증가는 한일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 문학이나 대중잡지뿐 아니라 자연과학과 공학 계통의 기술서적과 전문 도서의 수요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sup>29)</sup> 1966년 외국정기간행물수입 배포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후에도 그러했다.

#### 4) 출판물 표절과 해적판

일본으로부터 암암리에 들어온 일본의 신문, 대중지, 문예잡지 등은 일본 출판계와 문단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원이었다. 일본어 세대였던 지식층은 일본 문화 유입의 통로가 차단된 1950년대에도 열심히 일본 매체를 읽고 베끼고 참조하면서 한국 문학과 출판의 근대화를 기도(企圖)했다. 예컨대 1950년대 중반에 매달 일본의 문예잡지 『新潮』를 구독한다는 조영암 같은 문인은 일본 현대문학의 열렬한 애독자였다. 일본 매체를 통해 출판 정보를 접하고는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은 외국 문학 작품들이 출간되기를 고대하는 학생층도 있었다.<sup>30)</sup>

무엇보다 저널리즘과 출판계 종사자들이야말로 일본 매체에서 가장 많은 정보와 더불어 모방의 ‘영감’을 얻은 부류에 속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태양사는 일본 출판계의 동향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었던 출판사 중 하나였다. 1950년대에 일본 출판산업의 성공 사례를 모방하는 전략<sup>31)</sup>을 통해 성장한 신태양사의 편집 주체들은 일본 출판계의 흐름과 베스트셀러의 가능성을 읽고 ‘토착화’<sup>32)</sup>시키는 데는 탁월한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듯 신태양사는 1959년에 야스모토 스에코(安本未子)의 『니안짱(にあんちゃん)』를 번역·출간해 성공을 거둔 바 있었고 1960년 초에는 하라다 야스코의 『만가』를 베스트셀러로 만들기도 했다.

28) 「용공서적 수입한 교장 등, 반공법 적용 입건」, 『경향신문』, 1961.8.2.; 「불온서적 판매」, 『조선일보』, 1962.10.23.; 「불온외서 압수 명동 등서 113종」, 『경향신문』, 1965.1.20.; 「불온서적을 비치, 교장 등 4명 입건」, 『동아일보』, 1965.10.1.; 「불온서적 밀수」, 『동아일보』, 1965.3.1.

29) 「심화되는 일서 의존도」, 『동아일보』, 1967.6.20.

30) 조영암, 「소설의 재미(상)」, 『동아일보』, 1956.12.4.; 「앙케-트 독서」, 『경향신문』, 1955.9.6.

31) 이봉범, 「1950년대 종합지 『신태양』과 문학 -전반기(1952.8~1956.3)의 매체전략과 문학의 관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1,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532쪽 참조.

32) 외국 문학 앤솔로지로 발간된 『(世界)現大文學傑作選集』(신태양사, 1958)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책에는 토마스 만, 헤르만 헤세, 사르트르 등을 포함한 21명의 세계 ‘걸작’들의 번역과 마가렛 미첼, 톨스토이 등 13명의 작가들이 쓴 소설의 ‘다이제스트’가 실려 있다. 이 책은 1957년 1월에 일본에서 발간된 『文藝』 증간호 『世界文学珠玉集』의 내용과 편집 체제를 일부 빌려와 재가공한 것이었다.

“윤보선 씨 건물이 종로 1가와 2가 사이에 있었어요. 거기에 범문사(汎文社)가 있었어요. 범(汎)은 영어로 하면 판(pan)이죠. 범문사(Panmun Book Co.)하고 범한서적(Pan Korea Co.) 이름에 쓰였죠. 그리고 용산, 삼각지 등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책들, 그런 데서 소설도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그랬지. 이 범문이나 범한 같은 데는 문화적인 것보다는 도서관에 납품하는 걸 위주로 사들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학술적인 걸 취급했지. 그러니 단행본으로 발간할 만큼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일본 서점들은 충무로에 쫓 있었어요. 서점 주인들은 대개 평양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평양이란 데가 굉장히 학문적 욕구가 많은 데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피난 온 사람들 중 일부는 여유 있는 집안의 사람들이고, 대학을 나왔거나 일본 유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책을 출간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죠. 일본 책은 한국에서 팔릴 수 있는 시장이 금방 형성 돼. 그런 시장이 금방 느껴진다고요. ‘판권’만 보면 팔리는 책인지 아닌지가 직감적으로 느껴졌어.”<sup>33)</sup>

한국 출판업자들은 외서점을 돌아다니면서 출판 기획의 아이디어를 얻었다. 예컨대, 어느 출판사의 1960년대 주력 상품이었던 영어 교재의 원본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인데, 이를 최초로 발견한 곳이 바로 충무로 인근에 있던 일본도서 전문 서점이었다고 한다. 범문사를 비롯한 양서점과 충무로, 명동 일대에 있던 일서점은 출판인과 지식인들에게 선진적인 외국 지식과 출판사업에 대한 영감을 전해주던 곳이었다. “새로운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사람들”이나 “외국잡지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거나 그때그때 주요 화제가 되는 책”을 찾아 “해적판을 만들려는 유령출판업자”들도 외서점을 자주 드나들었다.<sup>34)</sup>

출판평론가 이중한은 1969년경 ‘일어 세대’의 출판기획을 논의하면서 “최근 10년간 한국에서 가장 판매에 성공했던 대부분 서적이 거의 전부 일본 대중소설류”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 동란 직후에 번역된 레마르크의 『개선문』, 『서부전선 이상없다』, 사르트르의 『구토』, D.H. 로렌스의 『차타레 부인의 사랑』 등이 같은 시기 일본의 해외 작품 베스트셀러였음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출판 기획진이 ‘일어 세대’여서 이러한 현상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그리고 사상계사와 중앙문화사 등에서 발간한 문고나 총서판의 표지 도안이 일본의 이와나미 등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점을 지적했다.<sup>35)</sup>

외국 출판물 도용 담론이 일본 책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나 영미권의 책도 ‘해적판’ 제작에 빈번하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문사의 유익형 사장은 1965년 봄에 영국 출판계 시찰을 갔다가 “귀국에서 우리 출판물의 해적판을 내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는 쓰라린 경험을 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sup>36)</sup>

이처럼 공식적인 문화 교류나 교역보다 더 문제적인 것은 그 뒷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집요한 모방과 표절, 참조와 도용이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어느 정도까지 진

33) 대한출판문화협회 편, 『한국 출판인 구술채록 및 출판문화사 데이터 모델링 연구』, 2022.6.

34) 「서울 새 풍속도(218) 명동(18) 불황 모르는 외서상(하)」, 『경향신문』, 1971.8.19.

35) 이중한, 「일어세대의 출판기획」, 『세대』 67, 1969.2.

36) 유익형, 「수치스런 해적판 범람」, 『조선일보』, 1965.9.23.; 「해적판에 골치 않는 영미 출판계」, 『동아일보』, 1967.4.13.

행되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조차 없는 ‘베끼고 훔치기’가 문화계 전반에 걸쳐 일상화되어 있었다. 창작인지 번역인지 구분할 수 없는 글들이 대중 매체에 범람하고 불법적으로 중역된 간행물들이 무단히 생산되고 읽혔다. 한국 출판자본의 초기 성립 과정에서 벌어진 이러한 모방과 표절의 사례들에 대해 단지 출판 윤리적 관점의 차원을 넘어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그 의미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 3. 베스트셀러 문화의 형성과 한국 독자

외서가(外書街)를 기웃거리고 밀수된 일본 잡지와 해적판 번역 소설을 읽으며 미국 잡지를 허리춤에 끼고 다닌 젊은 학생과 청년들의 모습은 1960년대 한국에서 일상적으로 관찰되는 풍경 중 하나였다. 미국 잡지와 씨리즈로 된 포켓트북 양서가 외서 읽기의 대중화를 먼저 이끌었다.

1959년 12월경 『조선일보』가 찾아간 서울의 어느 거리 양서점(洋書店)에서는 『라이프』(Life), 『룩』(Look), 『포스트』(Post), 『홈』(Home), 『보그』(Vogue) 같은 화보 잡지와 『리더스 다이제스트』(Reader's Digest), 『패전트』(Pageant), 『코로넷』(Coronet) 등의 다이제스트 잡지, 유명 해외 작가인 펄 벅, 헤밍웨이, 안네 프랑크, 서머셋 모뎀, 스타인벡, 플로베르, 토마스 하디, 셰익스피어, 디킨즈 등의 포켓북이 잘 팔리고 있었다. 건축이나 공과 계통의 전문 잡지를 찾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디자인 잡지나 여성지를 찾는 유복한 가정부인들, 『아틀란틱』(Atlantic)이나 『하퍼스』(Harper's), 『새터데이 리뷰』(Saturday Review) 등 시사·문화 종합지의 고정독자들이 노점을 드나들었다. 서점 주인은 잘 팔리는 책의 경향을 ‘그림이 많은 잡지’, ‘다이제스트’, ‘교양서’, ‘교과서로 쓰이는 책’, ‘외국 영화가 다룬 소재’, ‘우리말로 번역된 책’,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 책’, ‘인기 작가의 책’ 등으로 꼽았다. 또한 그는 ‘모음’이나 ‘헤밍웨이’ 책은 무엇이든 안 팔릴 걱정이 없고, 『의사 지바고』가 잘 안 팔리는 것은 내용과 문체가 어렵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sup>37)</sup>

이 외서 전문 노점상은 해외 문학의 경향과 시장성에 대한 나름의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 듯하다. 취급하는 잡지의 성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대, 성별, 계층, 지적 수준에 따른 외서 독자층의 범주도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런 서적상과 서점 고객들의 존재는 한국 외서 수입의 공식적인 역사가 시작된 이래 불과 몇 년 만에 외서가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상품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외서의 상품화 과정은 한국어 신문·잡지에서 번역텍스트의 비중이 증가하고 외지(外誌)와 외신(外信)을 통해 미국·일본의 지식과 정보가 끊임없이 전해지는 한편 한국 영화, 외화, 라디오 등 시청각 미디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외국 문화의 표상과 상상력과

37) 「잘 팔리는 모음, 유행은 노점 책가게에서」, 『조선일보』, 1959.12.3. 이 기사에서 거론된 포켓북은 『북경에서 온 편지』(펄 벅), 『무기여 안녕』(헤밍웨이), 『안네의 일기』(안네 프랑크), 『인간기반(羈絆)』(서머셋 모뎀), 『에덴의 동쪽』(스타인벡), 『보바리부인』(플로베르), 『테스』(토마스 하디), 『셰익스피어회곡』, 『二都이야기』(디킨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헤밍웨이) 등이다.

연동한다.



[사진] (왼쪽부터) <서울의 휴일>(1956), <어느 여대생의 고백>(1958), <맨발의 청춘>(1964)의 한 장면

1950년대 후반에 외국 잡지와 번역소설을 구매하고 읽는 것이 지식층을 넘어 대중독자층의 범위까지 확대되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프랑수아즈 사강의 번역소설을 읽고 일본 대중잡지 『킹』(キング)을 소포로 받아보며 서점에서 『뉴스위크』, 『타임』, 『라이프』 등의 서양 잡지를 구입하는 대중독자의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었다. 외국 도서의 주요 수용자층은 앞서 언급됐듯 지식인들과 청년, 학생층이었다. 외서는 그들이 가진 ‘현대감각’의 출처이자 세대적 표식이 되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친 후 외서 시장의 발흥과 호황을 계기로 한국의 독자층은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었다. 식민지기 일어 교육을 강제 당한 일본어세대와 전광용이 “일어를 모르는 순종 세대”라고 불렀던 ‘한글세대’의 학생층, 세부적으로는 일서와 양서를 통해 자신의 학문적·예술적 기반을 닦았던 지식인과 예술가, 번역 문학에 심취한 문학소녀와 여성독자, 미국 영어교재와 잡지를 찾아 읽는 영어열에 들린 독자, 일본 과학·기술 전문서적으로 독학한 수많은 장인과 기술자<sup>38)</sup>, 한국전쟁기에 책을 잃어버리고 새로이 책을 모아나갔던 장서가, 그리고 베스트셀러를 찾아 읽는 독자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분화하고 있었다.

1950년대 중반에 베스트셀러로서 젊은 독자층에게 더 주목 받고 있었던 책은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유주현 역, 신태양사, 1955) 같은 번역 서적이었다. 이현구는 1955년 11월의 지상(紙上) 좌담에서 이런 현상을 지적하며 “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체의 작품만을 지나치게 찾는 경향”<sup>39)</sup>이 농후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한국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양원달 역, 희문사, 1953~1956)가 대중독자들에게 널리 읽히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sup>40)</sup> 1955년 10월에 『동아일보』가 이화여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sup>41)</sup>가 이현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시기 『경향신문』의 독자 앙케트에 응답한 대학생들 역시 『사상계』, 『현대문학』 같은 한국어 잡지와 함께 문학과 사상 관련 영

38) 1968년에 세운상가에서 문을 연 세운기술서적은 수많은 대학교수와 연구자, 기술자들이 외국 전문서적을 찾아 모여들었던 곳이었다. 「청계천 지식의 요람 ‘세운기술서적’ 52년 만에 추억 속으로」, 『동아일보』, 2020.11.2.

39) 「사고와 사상의 토대를 위하여 : 독서주간 맞아 본사 주최 지상좌담(1)」, 『경향신문』, 1955.11.25.

40) 「(서적광고) 백만 독자의 절찬을 얻어 5권 발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동아일보』, 1954.5.9; 계용묵, 「작품의 번역과 역자의 문제」, 『경향신문』, 1954.11.11.

41) 「여대생의 교외생활 : 본보 설문 실토된 영상」, 『동아일보』, 1955.10.20.

어 서적, 일본어판 세계문학전집, 번역된 프랑스 현대문학을 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대학생 응답자 중 상당수는 ‘여대생’이었다.<sup>42)</sup>

1950년대 중반 여대생들의 독서 경향을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이 설문조사 결과들을 통해 1950~60년대 독서문화와 독자 표상에 관련된 중요한 논점들을 몇 가지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는 전후 여성독자의 성장<sup>43)</sup>이다. 외서와 번역물이 출판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베스트셀러 문화가 형성돼 가면서 여성 독자들의 존재가 한층 더 가시화 되고 중요시되었다.<sup>44)</sup>

둘째로는 여성독자들이 주목하는 ‘교양’이 주로 서양 및 일본의 서적과 그 번역물을 매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여대생들이 제출한 독서 목록에는 서양의 여러 고전과 현대문학을 향한 욕구가 드러나 있다. 그들의 애독서와 희망 도서 목록에는 앙드레 지드, 톨스토이 등의 근대 세계문학의 고전뿐 아니라 사강, 펄 벅, 마가렛 미첼, 헤밍웨이 등 서양 현대소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향후 1960년대 독서문화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학소녀’의 선배들로서 전후 교양열의 주체라 할 수 있다.<sup>45)</sup>

셋째로는 그들의 독서 경향에서 이른바 ‘초국적인 베스트셀러’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1950년대 초중반 일본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슬픔이여 안녕』은 1955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가 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작품이었다. 1960년 10월경에 『조선일보』가 시행한 독서실태조사<sup>46)</sup>에서는 조사대상 200여 명의 여대생들 가운데 “일본 책의 역서를 읽고 있는 率이 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대생들의 일본 번역서 읽기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인간의 조건』과 『만가』를 읽는다는 대답이 많았다. 같은 조사에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여대생들에 비해 일본 작품을 적게 읽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 조사에서 『만가』를 읽고 있는 이들이 1960년경의 일본 번역물 ‘붐’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주요 독자층이 여대생들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해준다.

마지막으로, 외서의 독자층 중 일부가 ‘한글세대’라는 점은 유독 강조될 필요가 있다. 한글세대가 “일본의 식민 통치와 그 교육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은 해방 후의 첫 세대”라든가 ‘일어를 모르는 순종 세대’라는 규정은 문제적이다. 한글세대 역시 전후세대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일본어의 지배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학교 교육과 독서의 측면에서 영어의 중요성을 계속 커지고 있었고, 『타임』, 『라이프』, 『뉴스위크』, 『리더스 다이제스트』 등의 미국 잡지는 학생층의 주요 독서 대상이 되었으며, 1959년에 창간된 『시사영어연구』 같은 영어학습지는 1960년대 내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42) 「양케-트 독서」, 『경향신문』, 1955.9.5~9.19. 이 양케트에 응답한 여대생들은 이순덕(문리대), 윤미림(경기여대 국문과), 백진해(숙대 문리대 국문학부), 오현숙(이대 의과), 김윤희(이대 영문과), 박구례(이대 국문과) 등이었다.

43) 노지승, 「1950년대 후반 여성 독자와 문학장의 재편」, 『한국현대문학연구』 30, 2010; 김윤경, 「1950년대 여성독자의 형성과 문학규범의 변화」,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2012.

44) 여석기, 「여성만세」, 『조선일보』, 1967.4.13. 등.

45) 1960년대 교양열과 문학소녀 표상에 대해서는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46) 「독서타진 (3) : 남여대학생, 문예영화에 자극을 받고」, 『조선일보』, 1960.10.22.

4.19를 전후로 학생층을 중심으로 “일어 붐”이 불어닥쳐 서울에만 수십 개의 “일어 강습소”가 곳곳에서 성업 중이었다. 일어열(日語熱)을 촉발시킨 요인 중 하나는 일본 서적의 독서였다. 4.19 이후 나타난 일본어 학원과 강좌의 풍경을 논의한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정원 90명에 120명의 학생들이 일본어 강좌에 몰려들었다 한다. 연령은 대부분 23~4세 정도인데, 그들이 일본어를 배우는 이유를 공부(40%), 소설 읽기(40%), 라디오 청취(10%), 번역(5%), 유학(5%) 순으로 나타냈다.<sup>47)</sup>

요컨대, ‘한글세대’인 학생층 여성독자와 그들의 교양열, 서양 및 일본 서적과 그 번역서가 1950~60년대 한국 독서문화의 재구조화와 베스트셀러 문화 형성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요소들이다. 학생층 여성독자의 성장은 단지 양적인 면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니다. 그들의 도서 구매력이 유독 컸다고 볼 수도 없다. 그들의 문화사적 의의는 베스트셀러 현상의 발화점으로서 1950~60년대 초국적 독서문화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데 있다. 그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에 대한 관심”<sup>48)</sup>이 많았다. 1960년대 초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 대중소설의 번역물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읽었다는 통계 조사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sup>49)</sup>

### 베스트셀러 제도의 형성

1950년대에 와서 베스트셀러는 전후 출판시장의 중요한 키워드가 되었다. 일간신문들은 ‘미국의 출판계’, ‘미국의 베스트셀러’, ‘미 작주 베스트셀러’ 같은 표제의 기사를 통해 미 공보원이 제공하거나 합동·동화·동양 등의 통신사가 수집한 미국 베스트셀러 정보<sup>50)</sup>를 소개했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의 상당수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음에도 한국의 저널리즘은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수집·검토했다.

1950년대에 들어서 미국의 출판·독서문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앞서 언급했듯 미국 베스트셀러의 현황이 일간 신문의 지면에 꾸준히 소개됐다. 한국의 출판산업에 깊숙이 개입했던 미 공보원도 “미국의 소설독자”와 베스트셀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창구 중 하나였다.<sup>51)</sup> 미국에서 일어나는 베스트셀러 현상에 한국 독서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예컨대 프랑수와즈 사강의 『슬픔이여 안녕』과 『어떤 미소』 같은 프랑스 현대 소설은 195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각각 유주현(신태양사)과 전해린(수학사)의 번역으로 출간되었다. 신태양사의 『슬픔이여 안녕』의 서적 광고는 미국에서 “근 6개월을 두고 계속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sup>52)</sup>

단행본 베스트셀러 집계는 1960년대 초에 매체 지면에 처음 나타났다. 1961년 말에

47) 「새해의 서적계: 일역서 붐이 한풀 꺾인 후」, 『조선일보』, 196.1.13.

48) 김순영 외, 위의 글 참조.

49) 「독서타진 (3) : 남여대학생, 문예영화에 자극을 받고」, 『조선일보』, 1960.10.22; 「외국작 번역이 으뜸, 7월 상반기의 베스트셀러」, 『동아일보』, 1962.7.21.

50) 「세계문화의 동향(3) : 미국의 문학(상)」, 『경향신문』, 1953.12.7; 「베스트셀러는 몇 부」, 『경향신문』, 1956.1.8; 「미 독서계 인기 서적명」, 『동아일보』, 1956.3.20. 등.

51) 「미국의 소설 독자: 베스트셀러를 중심으로」, 『조선일보』, 1956.8.18.

52) 이봉순, 「슬픔이여 안녕! 18세 된 사강 양의 처녀작」, 『경향신문』, 1955.9.25.; 「슬픔이여 안녕」의 서적 광고, 『동아일보』, 1955.10.19; 「어느 미소」, 『경향신문』, 1956.5.7.

발족한 ‘한국사회통계조사연구센터’가 베스트셀러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이 조사의 결과가 1962년 7월경 몇몇 일간신문에 발표된다. 『경향신문』의 「우리의 베스트셀러」(1962.7.20)와 『동아일보』의 「7월 상반기의 베스트셀러」(1962.7.21), 『서울신문』의 「베스트셀러 7월 상반기」(1962.7.20)가 이 통계센터의 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이 조사는 전국 1,280개 서점을 모집단으로 삼아 방문 조사와 우편 조사를 통해 7월 상반기(1일~15일) 베스트셀러를 ‘소설부, 비소설부, 아동도서부, 잡지부, 전집부’ 별로 분류하여 10위까지 순위를 매긴 것이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일간신문과 더불어 주간지가 베스트셀러 목록을 제공하는 주요 창구가 되었다. 주간지의 총아로 군림했던 『주간한국』은 1965년 1월 「연말연시의 베스트셀러」(1965.1.10)를 시작으로 베스트셀러 목록 연재에 나섰다.

1950년대 대중독자들의 독서 목록은 식민지기부터 형성된 서양 정전 목록의 갱신된 버전에 새롭게 부상한 유럽 및 미국의 ‘현대문학’과 서양 잡지들이 부가되는 방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1960년이 되면 그 독서 목록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의 현대 대중소설들도 자리를 잡게 된다. 크게는 냉전 체제와 일본·미국의 문화적 영향력 하에 재편된 교육제도와 대중 매체를 통해, 그리고 작게는 또래들 사이의 입소문을 통한 독서 목록의 전파가 이 같은 현대적 독자성(讀者性)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외서점을 드나들며 일본과 미국의 베스트셀러에서 출판 기획의 소재를 찾았던 출판업자들의 역할도 있었을 듯하다.

요컨대 1950년대 이래로 책 좀 읽는 한국인의 서가(書架)는 그 이전보다 한층 다채로워진다. 비유하자면 그 서가는 재건의 도정에 나선 민족문화, 잔존하는 식민지 근대성, 새롭게 유입된 전후의 일본 문화, 유럽과 미국의 근대성, 그리고 새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대중문화가 문화정치적 위계에 따라 배치되는 역사적이고 국제적인 문화의 진열장이 된다. 이러한 ‘초국적 서재’가 소위 지식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보다 넓은 독자층의 소유물로 확산된 현상에는 1950년대 중반부터 수입되고 생산되고 유행한 외서와 해외의 베스트셀러, 번역된 각종 문고본이나 세계문학전집이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다국적 텍스트가 수록된 문고본과 세계문학전집의 ‘전질’은 트랜스내셔널한 독서문화의 응축된 표상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문고본이나 전집에 속한 어떤 책들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대중적인 교양 정전이 되었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미완, 추후 보충)